

국립중앙박물관이 e뮤지엄을 통해 공개한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사진은 보은 법주사 팔상전으로 당시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다.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사찰 어떤 모습일까

국립중앙博 소장 유리건판 사진 고화질 공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유리건판 사찰 사진이 전면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약 3만 8천여 점의 고화질 사진을 'e뮤지엄(emuseum.go.kr)' 에서 전면 공개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사찰 · 민속 담은 3만 8천 점
600만 화소 고화질로 제공

유리건판은 감광유제를 유리판에 발라 건조시킨 일종의 필름으로 20세기 초 널리 이용되던 사진기술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당시의 문화재, 민속, 건축물 등을 기록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유리건판 사진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습이 바뀐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 모습, 민속자료, 북한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리건판 사진의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소장품 사진과 기본정보를 e뮤지엄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장 유리건판 사진 3만 8천여 건을 600만화소의 고화질로 e뮤지엄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유리건판 고화질 이미지는 기존의 소장품 사진 공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목적만 선택하면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소장품사진 사용에 관한 복잡한 허가절차가 없어지면서 편의성이 극대화됐다. 또한 모든 이미지는 공공누리 1유형으로 공개되어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활용, 내용변경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학술연구, 문화콘텐츠의 활발한 상업적 활용을 위해 소장품 정보공개와 자료의 고화질 · 고품질화를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탈 · 열반의 논리'를 설하다

주목! 학술서 - 김성철의 〈역설과 중관논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관학(中觀學)' 은 〈반야경〉의 공(空)사상에 토대를 두고 용수의 〈중론〉에서 제시하는 중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사상체계다. 〈반야경〉의 공사상과 용수의 중관논리에는 특유의 '역설 논법' 이 있다. 용수는 특이한 구조의 논법을 통해 논적(論敵)들을 논파해왔다.

중관학 특유 논리 체계인 '중관논리' 를 다룬 연구논문서가 나왔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역설과 중관논리- 반논리학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불교 중관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김성철 교수는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회쟁론 범문 · 장문 문법해설집' ,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등 중관사상 관련 논문과 저술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서 〈역설과 중관논리〉는 그가 발표한 중관학 관련 논문 중 논리적이고 문헌학적인 논문 8편과 원전 번역 1편이 수록됐다. 게재된 논문들은 모두 중관학 분야에서 연구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역작들이다.

가장 처음 게재된 연구논문 '역설과 중관논리' 는 1996년 제6회 가산학술상 수상 후 작성한 것으로, 수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발견한 집합론의 역설과 중관논리의 유사성을 밝혀낸 최초의 논문이다. 저자는 러셀의 계형이론의 '자의성(恣意性)' 을 비판하면서, '논리적 정당방위' 이론을 통해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Sambandhaparīkṣāvṛtti〉와 〈중론〉' 은 불교논리가인 다르마끼르띠(법칭)가 저술한 〈Sambandhaparīkṣāvṛtti(觀關係品註)〉에서 구사되는 논법을 분석함으로써, 다르마끼르띠에게 용수의 중관논리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다르마끼르띠에게서 중관학의 영향을 볼 수 없다는 비엔나 대학 슈타인켈러



중관학 논문 · 원전 번역 수록
수학 · 중관논리 비교 고찰부터
중관 · 불교논리학 접점 모색도
"논리적 사유 비판하는 反논리 훈련통해 철학적 의문서 해방"

(Ernst Steinkellner, 1937~)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중론〉 귀경게 팔불의 배열과 번역' 에서는 〈중론〉 귀경게의 범어 원문과 한역문 · 티베트어 번역문에서 팔불(八不)의 배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각 언어권의 시(詩)형식에 맞춰 배열을 조작한 것을 저자는 증명한다.

김성철 교수는 연구서를 통해 중관논리가 논리적 사유를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는 '반논리(反論理, Counter Logic)' 임을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관논리는 용수에 의해 창안됐지만 그 연원은 〈반야경〉의 공사상과 초기불전의 연기설에 사상적 연원이 있다. 이에 따라 중관논리는 '공의 논리' 이자 '연기의 논리' 이면서 흑백논리를 비판하는 '중도의 논리' 라고 김성철 교수는 주장한다. 또한 종교적, 철학적 번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 '열반의 논리' 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온갖 이론과 망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속박에서 해방되기에 '해탈의 논리' 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철 교수는 "중관논리는 우리의 논리적 사유를 비판하는 '반논리' "라며 "우리는 중관학의 반논리학을 훈련함으로써 종교 · 철학적 의문에서 해방되며, 그동안 자신이 견지하던 인생관 · 가치관 · 세계관의 상대성을 자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석탑 수리기술 모든 것 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서 〈석조문화재 수리〉 발간

석탑 수리 기법 · 과정 담아
"수리 품질 향상에 노력"

석탑 수리기술 전반을 연구한 전문연구서가 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석탑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서로 석탑 수리공사의 기초조사 · 공사과정과 기법 · 보존기술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을 발간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연구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석조문화재를 수리하며 축적한 기술연구 성과를 정리해 석탑수리 전 과정을 흐름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통해 상세히 서술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는 석탑 수리공사의 변천과 수리공사 유형별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2장에는 석탑 실측조사의 상세한 방법을 기술했다.

3장에는 석탑의 훼손유형과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 균열 · 파손의 원인조사, 해체조사, 지반조사, 석재 산지조사, 구조해석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4장의 구조보강 · 접합 · 색맞춤 등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자료와 함께 석탑 수리공사 현장의 자료를 협조 받아 수록해 다양한 사례를 게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

이번에 발간한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석탑)〉은 국공립 도서관과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에도 공개된다.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이 문화재실측설계와 수리공사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석조문화재 수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10회 원효학술상 공모

내년 2월 3~28일 접수… 학자 · 학생 부문으로 나눠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원효학술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내년 제10회 원효학술상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대상자 접수 기간은 내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모집 부문은 △현대 사회,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과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등이다. 대상자는 모집 부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편만 응모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1부와 저서 2부, 논문 별쇄본 3부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 논문의 경우 5년 이내 발표된 것으로 조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지원서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학자와 석 · 박사 과정 학생부문으로 시상을 단순화한 대신 상금을 상향 조정했다. 학자부문 논저의 경우 2000만원,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는 300~50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02)719-2606 신성민 기자



